

중소기업 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 열려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2024. 6. 21.)

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중소기업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.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진종욱, 이하 국표원), 한국소비자원(원장 윤수현, 이하 소비자원)은 6월 20일(목)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어린이제품 영세·중소 기업 대상으로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.
- 금번 세미나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(원장 이재만),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(이사장 소재규),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(이사장 문윤호)과 공동 개최되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와 지원사업, 어린이제품 위해 사례와 시정조치,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·유통을 위한 제품관리 방법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내용이 발표되었고, 이후 안전하게 어린이제품을 생산·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하는 Q&A 컨설팅이 진행되었다.
- 또한,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(3월)에 이어 하반기 '어린이제품 영세·소기업 대상 시험·인증 비용 지원사업'* 신청·접수를 7월 22일부터 받을 예정이다.
 - *「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」으로 '23년 557개 어린이제품 기업 지원(7.87억원)
'24년 하반기 접수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7.22.(월)부터 온·오프라인으로 개시
-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"어린이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세·중소기업의 역량강화는 중요하며, 이를 위해 어린이제품 인증부담 완화 및 제품관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다"면서, "정부·전문공공기관·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업역량 강화지원을 위한 협업을 지속하겠다"고 밝혔다.